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rnal User Service Systems in University Libraries

송 영 희(Young-Hee Song)*

<목 차>

- | | |
|-----------------|----------------------|
| 1. 서론 | 4. 외부이용자를 위한 특별이용자제도 |
| 2. 선행연구 | 5. 연구결과 및 제언 |
| 3. 대학도서관 개방의 배경 | |

초 록

본 논문은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현황을 파악하고자 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24개의 도서관을 선정하고 각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제도와 대출정책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또한 외부이용자를 위한 특별이용자제도 도입시 고려할 사항을 다루었다.

주제어 : 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 서비스, 지역사회 개방, 특별열람증, 대출정책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ions and circulation policies regarding external users of twenty four university libraries opening their services to communities. Also several considerations are discussed about introducing external user library services for communities.

Key Words : external user library services, university libraries, community services, circulation policies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song@hyomin.donggeui.ac.kr)

· 접수일 : 2001. 11. 16 · 최초심사일 : 2001. 11. 30 · 최종심사일 : 2001. 12. 7

1. 서 론

대학이 사회에 개방되면서 연구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과거 어느 때 보다 확대되었다. 많은 대학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을 설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과정인 아닌 여러 교양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기업과 산학협동체제를 이루어 대학의 연구성과물이 기업의 기술력이 되며 기업체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수로 강단에서는 등 대학사회의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러한 변화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의 주요한 목적은 대학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내부이용자에 대한 봉사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대학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는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도서관은 다른 관중에 비해 풍부하고 질 높은 장서, 훌륭한 시설, 전문사서를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이용자에게 친숙한 정보센터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대학도서관이야 말로 그 지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정보센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지역 내의 주민과 단체, 기업 등 외부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 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학이 지역사회의 일원인 이상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특히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무조건 도서관 이용을 통제한다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 및 지역정보화의 역할을 거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미 몇 개의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사회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도서관 메일링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들이 정부의 미약한 지원으로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인식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대학도서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외부이용자를 위한 특별이용자제도와 대출정책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서관개방을 고려하는 대학도서관에게 하나의 지침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1) 곽주원, "대학도서관이 이웃으로 태어나고 있다.", 《문화도시·문화복지》 73호(2000, 2), p. 36.

2. 선행연구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이후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외부이용자들의 대학도서관 이용 요구가 증가하자 주 이용자인 대학구성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된 유료정보 서비스에 관한 것, 도시지역 소재 대학도서관들이 정보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고등학생, 기업체들의 대학도서관 개방요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외부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Piternick²⁾은 British Columbia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 지역의 기업체 직원,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이 증가하자 이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시행한 유료 대출 특권서비스제도를 기술하였다.

Baker³⁾는 MIT대학 도서관이 외부이용자를 위한 유료정보서비스와 특히 대출특권제도의 운영방법을 설명하였다.

Coffman과 Josephine⁴⁾은 대학도서관들이 점증하는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유료정보서비스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과 외부이용자간의 긴밀한 결속과 함께 기부금이 증가되고 재정적 위기에 처한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사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Nicewarner와 Simon⁵⁾은 Nevada지역의 유일한 정보 제공기관인 Nevada대학도서관이 Nevada 남부지역의 주민들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배경, 시행방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McNamara와 Williams⁶⁾는 도시지역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도서관이용을 요구하게

2) Ann B. Piternick, "Problems of Resources Sharing with the Communit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 5(1979), pp. 153-158.

3) Shirley K. Baker, "Fee-Based Services in the MIT Libraries", *Science & Technology Libraries*, Vol. 5, No.2(1984), pp. 15-21.

4) Steve Coffman and Helen Josephine, "Doing It for Money", *Library Journal*, Vol. 116, No. 17(1991), pp. 32-36.

5) Metta Nicewarner and Matthew Simon, "Achieving community Borrower Compliance with an Urban University Library's Circulation Policies: One University's Solutio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 22, No. 6, pp. 435-439.

6) Jay R. McNamara and Williams Delmus E, "High School Students and Libraries in Public Universities". In: *Academic Libraries in Urban and Metropolitan Areas*, ed. by Gerard B. McCabe. New York : Greenwood, 1992. pp. 55-67.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2권 제 3호)

된 배경과 그 결과 공공기금을 지원 받는 도시지역 대학도서관들이 주 이용자인 교수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위해 개발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대출정책에 관해 기술하였다.

Mitchell⁷⁾은 일부 주립대학들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출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Simon과 Garten⁸⁾은 도시지역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의 기업과 산업을 위한 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시 필요한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Schneider⁹⁾는 지방캠퍼스 도서관들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조사 및 특히 지역사회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봉사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대출서비스,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교육, 고등학생 대상의 도서관 견학 및 이용법 강의, 그 외에 사회에서 필요한 강좌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서와 도서관 봉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대학의 목적 중의 하나인 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대부분의 국내자료들은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의 필요성과 운영사례를 통해 지역정보센터의 구축방안, 운영상의 문제, 효과 등을 기술하였다.

곽주원¹⁰⁾은 대학사회의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김영호¹¹⁾는 동양대학교 도서관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민 정보서비스시스템의 구축단계를 설명하고 지역주민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 효과 등을 운영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백성규¹²⁾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자관의 지역사회 개방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과는 달리 강남대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해 개발한 문화학교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7) Eugene S. Mitchell, "General Circulation Policies for Private Citizens: The Practices of Publicly Supported Academic Libraries". In: *Academic Libraries in Urban and Metropolitan Areas*, ed. by Gerard B. McCabe. New York : Greenwood, 1992. pp. 33-44.

8) Linda Keir Simons and Edward D. Garten, "Urban University Library Services to Business and Industry". In: *Academic Libraries in Urban and Metropolitan Areas*, ed. by Gerard B. McCabe. New York : Greenwood, 1992. pp. 45-54.

9) Tina M. Schneider, "The Regional Campus Library and Service to the Public",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 27, No. 2, pp. 122-127.

10) 곽주원, *op.cit.*, pp. 36-39.

11) 김영호, 『지역주민 정보서비스 구축·운영 사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발전방안』, http://www.riss4u.net/seminar/seminar_fm_p.html

12) 백성규,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개발: 강남대학교도서관 문화학교 사례", 『제 39회 전국도서관대회 主題發表論文集』, (2001), pp. 180-202.

을 제시하였다.

정병진¹³⁾¹⁴⁾은 외국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역주민 서비스 현황과 지역정보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원광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개방, 시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시영¹⁵⁾은 정보가 기반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의 하나가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대학의 사회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주민이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각종 시설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개방이 불가피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

정경란¹⁶⁾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경남대학교가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출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규정, 이용현황, 문제점을 설명하고 경험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3. 대학도서관 개방의 배경

미국도서관 협회의 전문직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미국 도서관 봉사정신의 철학은 “정보접근에 대한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은 주 이용자인 대학의 구성원에게만 아니라 외부이용자에게도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 대학도서관들은 외부이용자에게 자료의 관내이용은 물론 대출서비스까지 확대하기에 이르렀으며 1967년에는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도서관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도서관들은 장서수준, 시설과 장비, 인력, 재정 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대학도서관은 대학사회의 구성원인 교직원 및 학생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개방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13) 정병진, “지역정보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대도협회지》 1집(2000), pp. 153-163.

14) 정병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원광대학을 중심으로”, 《제 39회 전국도서관대회 主題發表論文集》(2001), pp. 151-179.

15) 이시영, “대학도서관의 개방 사례연구”, 《사대도협회지》 2집(2001), pp. 167-175.

16) 정경란, “대학도서관의 개방사례 연구: 경남대학교 도서관 대출서비스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2집(2001), pp.133-143.

있다.

첫째,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도서관에게 전문주제서비스와 대출특권서비스를 요구하였다.

둘째, 지역주민, 지역의 기업체 직원, 외부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 이용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은 좋은 의지에서 대학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필요한 경우 미국 내 어떤 도서관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외부이용자들의 생각이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도서관은 외부이용자들의 개방요구가 확산되자 대학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미국과는 다르다. 외부이용자의 요구도 있었지만 대학사회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 지방자치제로 인한 지역화, 지역정보화 시책 등이 지역사회에 도서관 개방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다음의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외부이용자들의 끊임없는 도서관 개방요구와 도서관의 인식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자료가 풍부한 대학도서관들은 언제나 외부이용자들로부터 도서관 개방문제에 대해 도전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졸업생을 포함하여 외부이용자들이 학술정보가 필요한 경우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정보 접근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대학도서관은 이들에게 훌륭한 정보제공기관이 된다. 따라서 도서관이 점증하는 외부이용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관 개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을 것이다.

둘째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정부의 지역화정책이 자리잡아가면서 대학사회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더 이상 고립된 학문의 요새로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산학협동을 통해 대학과 기업 및 산업간의 연계가 이루어졌고 대학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일반인에게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이들이 대학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 그리고 일반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나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학평가에서 정보화추진 조직 및 정보이용 접근환경, 학술정보 공유체제 참여도, 지역 내 중등이하 학교 및 지역의 정보화 지원을 평가하는 항목은 대학의 인적자원 및 시설을 지역주민, 단체, 정보이용의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등의 사회봉사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가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을 촉진시켰다.

4. 외부이용자를 위한 특별이용자제도

4.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들의 외부이용자를 위한 특별이용자제도와 외부이용자 서비스 중 핵심이 되는 대출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조사 및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특별이용자 제도

둘째, 대출정책

연구방법은 동의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4년제 대학 120개를 대상으로 각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을 선정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특별이용자제도와 대출정책을 조사하였다. 이외에 도서관 메일링리스트, 문헌조사, 그리고 관련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는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해 필요한 사항이 조사되었다.

연구의 제한점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지역사회 개방과 관련된 사항을 공지하지 않은 도서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특별이용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이 포함되지 못해 폭 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2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은 2001년 10월 현재 동의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타나있는 120개의 4년제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도서관으로 하였다.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고 휴학생, 동창생, 그리고 대학부설 기관의 수강생들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24개의 도서관이 선정되었고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별 개방도서관 수

지 역	도서관 (수)	비율(%)
대구.울산.경북	9	37.50
대전.충남	5	20.83
광주.전남	4	16.67
부산.경남	3	12.50
강원도	2	8.34
전라북도	1	4.16
계	24	100.0

<표 1>에서와 같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서관 개방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 울산, 경북지역이며 반대로 서울, 충북, 제주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지역의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서울이라는 지역이 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고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런 경우 내부이용자 서비스가 축소되며 외부이용자 관리문제, 사서들의 과중한 업무, 서울대학교의 경우처럼 학생들의 반대 등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개방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다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 보면 국립대학도서관이 8개, 사립대학도서관이 16개였다.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공식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도 외부 이용자가 열람의뢰서를 소지한 경우 최소한 관내열람과 복사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자는 1997년 50개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외부이용자서비스를 조사하였는데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도서관은 응답도서관 44개 중 3개에 불과하였다.¹⁷⁾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서비스는 1997년 4개 도서관으로 시작되어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3개 도서관, 2000년 4개 도서관, 2001년 7개 도서관 그리고 시작연도가 확인되지 않은 3개의 도서관을 합하여 총 24개이다. 이 숫자는 전체 대학도서관 수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나 공식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대학도서관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4.3 조사결과의 분석

4.3.1 외부이용자를 위한 특별이용자 제도

대학도서관에서 외부이용자라고 함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을 제외한 도서관 이용자를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인 지역주민, 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지역사회 구성원, 해당대학의 휴학생, 졸업생, 비정규과정 수강생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들은 특별이용자제도를 운영하여 외부이용자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특별이용자제도라는 명칭 대신 특별열람증제도, 도서관특별회원제도, 특별이용자제도, 외부이용자 도서관 대출증, 시민열람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특별이용자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7) 송영희, 『대학도서관의 유료정보서비스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p. 4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1997년 4개의 대학도서관으로 시작되어 현재 24개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1.1 지역사회의 개방목적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도서관의 목적은 내부이용자인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이용자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도서관이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목적은 대체로 <표 2>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기능을 확대하며 특히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정보센터의 역할”이었다. 이외에 목적으로는 “도서관 자료의 적극적 활용”,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지방화, 지역화 선도”, “대학사회의 사회적 책임실현”, “홍보”, “자료이용요구에 부응”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외부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개방목적

목 적	대학(수)	비율(%)
1. 지역 정보센터의 역할	17	70.83
2. 도서관 자료의 적극적 활용	4	16.67
3.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4	16.67
4. 지방화, 지역화 선도	4	16.67
4. 대학사회의 사회적 책임실현	3	12.50
5. 홍보	2	8.33
6. 자료이용요구에 부응	1	4.17

* 개방목적이 복수인 경우는 각각의 항목에 포함시킴

4.3.1.2 특별열람증 발급

대학도서관은 공식적으로 외부이용자들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하거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직접ID를 부여하여 신분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열람증의 명칭은 특별열람증, 도서관회원증, 도서관이용증, 도서대출증, 도서관열람증, 도서관특별회원증, 시민열람증 등이며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특별열람증으로 나타났다. 외부이용자는 열람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대신 도서관은 외부이용자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다.

4.3.1.3 열람증 발급대상자

열람증 발급대상은 <표 3>에서와 같이 24개 대학도서관 모두가 지역주민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이외에 지역사회 공무원 및 교원, 기관단체에게 열람증을 발급하는 도서관이 8개, 지역연구기관 및 기업체, 졸업생에게는 7개 도서관, 부설기관 수강생 및 이수자, 휴학생,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3개 도서관, 교류협정체결기관 및 기업체, 학부모에게는 2개 도서관 그리고 협의회 대학 이용자, 부설연구소 기업체 및 연구소(정회원), 장애인을 발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이 각각 1개였다.

<표 3> 열람증 발급대상자 종류

대 상	도서관(수)	비율(%)
지역주민	24	100.00
지역 공무원 및 교원, 기관단체	8	33.33
지역연구기관 및 기업체	7	29.17
졸업생	7	29.17
부설기관 수강생 및 이수자	3	12.50
휴학생	3	12.50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3	12.50
교류협정체결 기관 및 기업체	2	8.33
학부모	2	8.33
부설연구소 기업체 및 직원(정회원)	1	4.17
협의회대학 이용자	1	4.17
장애인	1	4.17

* 대학도서관이 발급대상을 특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주민과 단체항목에만 포함시킴.

4.3.1.4 특별열람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특별열람증은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신청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인인 경우 열람증 발급신청서 1부, 지역주민 및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과 사진 2매(1매를 받는 곳도 있음)이며 지역의 기업체나 직원, 공무원, 교원인 경우는 열람증 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사진 2매(또는 1매)이다.

신청서에 입력할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가 일반적이다. 몇몇 도서관은 신청서에 보증인 난을 두고 해당 대학의 교수나 직원을 보증인으로 요구하며 기업체나 직원, 공무원인 경우는 단체장의 확인, 지역주민인 경우는 읍. 면장의 추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증인 제도는 외부이용자의 신분만으로 자료를 대출하기 때문에 연체자료나 분실자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열람증 발급에 따른 업무를 줄이기 위해 신분증에 ID를 부여하여 신분증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도서관도 있다.

한 대학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구의 협조를 받아 동사무소, 구청, 도서관 3곳에서 도서관 이용신청서를 받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날짜에 소정의 이용자 교육을 실시한 후 특별열람증을 발급하고 있다.

특별열람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 후 6개월, 또는 1년이며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한 도서관은 열람증의 유효기간을 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1년, 휴학생은 6개월, 부설기관의 수강생은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4.3.1.5 요금제도

특별열람증 발급에 따른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도서관이 무료로 열람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24개 도서관 중 연회비를 받는 도서관이 2개, 예치금제도를 실시하는 도서관이 4개 그리고 신청시 도서상품권 (5천원) 2매를 받고 있는 도서관이 1개였다.

연회비를 받는 2개의 도서관은 회원을 우대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누고 일반회원에게는 자료이용에 대해 연회비 10만원을 부과하며 10년간 계속해서 연회비를 낼 경우는 평생 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대회원증의 발급대상은 두 도서관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 도서관은 도서 1,000권 기증자 또는 도서관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이며 다른 한 도서관은 도서 200권 기증자, 또는 도서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 이상 기부자로 하여 우대회원증을 주고 평생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치금제도를 시행하는 4개의 도서관 중 한 도서관은 일반인에게는 10만원,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5만원의 예치금을 받으며 특별열람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예치금을 반환한다.

다른 한 도서관은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고 정회원의 자격을 휴학생, 대학원 수료생, 정년(명예)퇴직교원, 도서 300권 이상 기증자,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 이상 기부자로 하여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졸업생, 협정을 맺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 지역거주자(타 대학 대학원생은 제외)에게는 도서관 준회원자격을 주고 자료의 대출자격 조건으로 5만원의 예치금을 받고 있다. 예치금은 회원자격 상실시 환불해 주는데 이러한 예치금제도는 연체 및 분실자료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도서관은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와 예치금 5만원을 제출하면 즉시 열람증을 발급하며 열람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회원 자격상실시 예치금을 반환

한다.

나머지 한 도서관은 관내열람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임시열람증을 발급하며 장기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예치금 2만원과 수수료 2천원을 받고 6개월 단위로 특별열람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외에 17개 도서관(2개의 도서관은 관내열람만 가능)은 무료로 특별열람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도서관들이 대개 대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회비를 받는다는지 예치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도서관 서비스를 무료로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 도서관이용이 위축될 수 있으며 좋은 의지를 가지고 대학이 지방화, 지역 정보화를 목표로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친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이 무료서비스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 외부이용자로부터 연회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Mitchell¹⁸⁾은 1990년 외부이용자에 대한 대출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내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68개의 4년제 대학도서관장에게 질문지를 보냈다. 그 결과 응답한 49개의 도서관 중 30개의 도서관이 외부이용자에 대해 요금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개개의 대출자에게 연회비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연회비는 25불이었으며 10불, 20불, 30불, 50불 그리고 500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연회비 대신 4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회비를 받기도 하며 이용시에 요금을 받는 도서관, 연회비 외에 예치금을 요구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외부이용자는 요금을 부과하고 대학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되며 관내열람과 졸업생에게는 회비를 낮게 부과하는 등 요금정책이 다양하였다.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아직 외부이용자에게 연회비나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제로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예치금 제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회비 및 예치금제도에 대해 몇 명의 사서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현 시점에서 연회비제도나 예치금제도의 시행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축소시키며 도서관의 좋은 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로 한 사서는 예치금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연체자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연체 및 분실도서에 대한 문제해결과 이용자 통제를 위해서 예치금제도, 나아가서 연회비 부과방법은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차후에 진지하게 고려할 사항인 것에는 틀림없다.

18) Eugene S. Mitchell, "General Circulation Policies for Private Citizens: The Practices of Publicly Supported Academic Libraries". In: *Academic Libraries in Urban and Metropolitan Areas*, ed. by Gerard B. McCabe. New York : Greenwood, 1992. p. 41.

4.3.1.6 제공되는 서비스

대학도서관이 특별이용자제도를 통해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부학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종류는 자료검색 및 안내 열람, 복사서비스, 전자정보자료 검색 및 이용, 도서관 상호대차, 원문제공서비스, 참고서비스, 열람실이용, 대출, 도서관 자료 이용법 및 전자정보자료 이용법 지도, 독서지도, 도서관주최 행사 참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위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대출 이외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열람실 이용과 대출서비스는 운영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자료보다는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경우 열람좌석수의 부족현상은 내부이용자인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봉사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도서관을 개방하는 도서관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열람실이용으로 열람실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며 독서실 내지 공부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체열람실을 개방하기보다는 몇몇 대학도서관에서와 같이 열람실을 따로 비치하던지,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지정하거나 시기를 정하여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도서관의 게시판에는 중·고등학생의 도서관 출입을 막아달라는 의견이 여러 번 올라와 있었다. 따라서 특별열람증 발급대상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출서비스는 장서가 풍부한 도서관이라면 지역사회와 함께 자료를 공유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내부이용자들의 불만과 서비스 축소가 우려된다. 또한 대출 도서의 연체나 분실문제는 처리가 간단하지 않다.

4.3.2 대출정책

외부이용자에 대한 대출규정 및 정책은 대체로 학부학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24개의 대학도서관 중 외부이용자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면서도 2개의 도서관은 안내열람만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의 도서관은 대출 책수와 기간, 대출기간 연장, 연체, 분실 규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2.1 대출 대상자료의 종류

대출대상 자료의 종류는 국내·외 단행본이며 1개의 도서관만이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외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안내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자료는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비도서자료, 귀중자료, 논문자료 등이었다.

4.3.2.2 대출 책수 및 기간

24개의 도서관 중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2개의 도서관간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표 4>에서와 같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대출 책 수 및 기간

책 수 및 기간	도서관 (수)	비율(%)
2책 7일	4	18.18
2책 10일	2	9.09
2책 14일	1	4.55
3책 7일	2	9.09
3책 10일	4	18.18
3책 14일	4	18.18
3책 15일	1	9.09
5책 10일	3	13.63
5책 14일	1	9.09
계	22	≒100.00

대출 책 수 및 기간을 2책 7일, 3책 10일, 3책 14일로 하는 도서관은 각각 4 개, 5책 10일이 3개, 2책 10일, 3책 7일이 각각 2개, 그리고 2책 14일, 3책 15일, 5책 14일이 각각 1개였다.

3개의 도서관은 예외사항을 두고 있으며 그 중 2개의 도서관이 우대회원에게는 5책 30일을, 1개의 도서관이 단체회원에게 10책 30일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대출책수와 대출기간으로 분석하면 대출책수는 2책이 7개 도서관, 3책은 11개 도서관, 5책은 4개 도서관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출기간은 7일이 6개 도서관, 10일은 9개 도서관, 14일은 6개 도서관, 15일은 1개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출책수는 3책, 대출기간은 10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3.2.3 연체 및 반납에 대한 제재

대출기간의 연장은 2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 한번은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의 연체와 분실은 내부이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외부이용자들이 대출자료를 연체하지 않도록 대출시 대출관련 규정 및 제재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연체자료에 대한 제재 방법은 조사결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책 당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기간을 산정하고 그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는 방법

둘째, 1일 연체료를 책 당 연체일수와 곱하여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법

셋째, 연체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동시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법

넷째, 기타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15개 도서관, 두 번째 방법은 3개 도서관 그리고 세 번째 방법과 네 번째 방법은 각각 2개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방법을 사용하는 두 개 도서관 중 한 도서관은 연체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중지하며 나머지 한 도서관은 '연체일수에 따라 기간만큼 대출중지', '연체료 부과', '연체일수 1일에 2시간 근로봉사' 중에서 연체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연체일수에 따라 대출을 중지하는 도서관들 중 연체책수 x 연체일수 x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는 도서관이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연체책수 x 연체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는 도서관이 4개, 연체책수 x 연체일수 x 3배, 연체책수 x 연체일수 x 7배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는 도서관이 각각 1개였다.

연체료를 부과하는 도서관들의 제재내용을 보면 연체책수를 연체일수와 1일 연체료를 곱하여 부과하는데 하루 연체료를 50원으로 하는 도서관이 2개, 하루 100원으로 하는 도서관이 1개, 하루 500원으로 하는 도서관이 1개였다.

연체일수와 연체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재하는 도서관은 2개로 연체일수의 두 배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여기에 하루 연체료를 100원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

또한 연체도서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며 연속 3회 이상 연체하는 등 장기연체에 대해서는 이용자격 정지 및 열람증 회수, 반납독촉 통지서를 3회 이상 발급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분실자료로 간주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등 장기 연체자료 처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제재사항은 대부분의 도서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실도서에 대한 변상은 동일한 도서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동일한 도서를 구하지 못한 경우 유사 도서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물변상이 어려우면 대금변상이 가능하며 변상액은 도서관마다 부과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현 시가의 2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따라서 자료의 발행년도,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변상액을 계산하며 상당수의 도서관이 추가로 자료 정리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연구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의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타난 4년제 대학도서관 중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특별이용자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4개의 대학도서관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각 홈페이지 상의 정보, 전화,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 전자메일,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각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를 위한 특별이용자제도와 대출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120개의 4년제 대학도서관 중 24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상황은 대구·울산·경북지역이 9개 도서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충북, 제주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을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로 구분해 보면 국립대학교도서관이 8개, 사립대학교도서관이 16개였다.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한 시기는 1997년 4개 도서관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1년에 많은 도서관들이 참여하였고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서관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별이용자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도서관들은 외부이용자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하며 발급대상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이고 그 외 발급대상은 도서관에 따라 달랐다. 열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 등이 필요하며 지역의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신청서에 보증인 난을 두고 보증인을 해당대학의 교직원으로 한정하기도 하며 읍·면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특별이용자제도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도서관들은 무료로 열람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연회비, 예치금제도를 실시하는 도서관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도서관이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료검색 및 관내열람, 복사서비스, 전자정보자료 검색 및 이용, 도서관 상호대차, 원문제공서비스, 참고서비스, 열람실 이용, 대출, 도서관 자료 이용법 및 전자정보자료 이용법 지도, 독서지도, 도서관 주최 행사참석 등 다양하였다.

셋째, 외부이용자에 대한 대출정책을 조사, 분석한 결과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조사대상 24개 도서관 중 22개였으며 2개의 도서관은 관내열람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대상자료는 국내 및 국외 단행본이며 1개 도서관은 석·박사학위논문까지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책수 및 기간은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2책 7일, 3책 10일, 3책 14일로 하는 도서관이 각각 4개, 5책 10일이 3개, 2책 10일, 3책7일이 각각 2개, 그리고 2책 14일, 3책 15일, 5책 14일이 각각 1개씩이었다. 대출책수는 3책, 대출기간은 10일이 가장 많았으며 대출기간의 연장은 대체로 한번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체자료에 대한 제재방법은 책 당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기간을 산정하고 그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는 방법; 1책 당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법; 연체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동시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연체도서가 있으면 대출 중지, 연속 3회 이상 연체 그리고 3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즉시 이용자격정지 및 열람증이 회수되며 반납독촉통지서를 3회 이상 발급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분실자료로 간주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등 도서관마다 장기연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도서에 대한 변상은 동일 도서관이나 유사 도서관도 가능하며 실물변상이 어려우면 대금변상도 가능하였다. 변상액은 도서관마다 부과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현 시가의 2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자료의 발행년도, 종류에 따라 변상액을 계산하며 상당수의 도서관이 자료 정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은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많은 도서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대학과 관련 없는 외부이용자에게 공식적인 도서관 개방을 시도한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외부이용자들의 이용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대학도서관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조사된 대학도서관들의 특별이용자제도와 대출정책을 보면 관련된 규정들이 대학의 규모, 대학의 목적, 대학의 정책, 소속된 지역사회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대학의 지리적 위치는 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외부이용자를 위한 특별이용자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정보접근에 제한을 받던 외부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의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이다. 지역사회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감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도서관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자료가 풍부하고 도서관 이용자가 많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학도서관들이 특별이용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적어도 대학도서관이 특별이용자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다.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둘째, 도서관 개방을 결정하기 전에 도서관이 속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지금까지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이용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을 통해서 개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내부이용자의 불만이나 불평을 사는 경우 외부이용자를 위한 특별이용자제도가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부이용자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이용자도 언젠가는 외부이용자가 될 것이다.

넷째, 특별이용자제도의 규정은 작성시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야 한다. 한번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외부이용자에게 처음부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문제의 소지가 많은 열람실 개방과 대출서비스는 시행에 앞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두 서비스는 내부이용자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열람실 개방은 열람석의 부족, 도난발생, 열람실 분위기 훼손 등의 문제, 대출서비스는 내부이용자의 이용을 축소시키며 연체 및 분실, 자료의 훼손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연체자료 및 분실자료에 대한 규정이 이용보다는 규제에 중점을 두어 외부이용자의 대출, 나아가서 도서관 이용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특별이용자제도의 운영방법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 무료방법이외에, 예치금 제도, 회원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아홉째, 특별이용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도서관의 사례를 참조한다.

대학도서관 개방은 명실공히 지역정보 및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함은 물론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도서관의 기능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